

## ▣▣▣ 업계동정 ▣▣▣

### LG産電(株), 유압 엘리베이터용 모터 개발

LG産電(株)(代表 : 李鍾秀)이 유압 엘리베이터용 모터 13종을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이 회사의 현지 법인인 美셈코社(CEMCOLIFT)에 공급한다고 밝혔다.

이번에 개발된 모터 중 언더오일 타입(Under Oil Type)은 모터가 오일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모터로서 엘리베이터용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으며, 전 기종 모두 세계 최고의 유압 엘리베이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美셈코社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 받았다.

또한 최대 75마력의 드라이 타입(Dry Type) 모터는 벨트를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로서 5톤 이상의 대형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채용할 경우 그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

LG산전은 이번 유압 엘리베이터용 모터 개발을 통해 연 2천5백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 시장

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으며, 자회사인 美셈코社 납품을 발판으로 세계 시장의 20%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. 이를 위해 현재 미국 품질 규격인 UL 규격 획득을 추진 중에 있다.

또한 유럽에서 모터를 수입해 사용하던 美셈코社의 경우 유압 엘리베이터의 자작률을 높일 수 있게 돼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됨은 물론 유압 부품 수출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, 모터 전문제조 업체로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게 되어 LG산전에 인수된 후 가시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이게 되었다.

LG산전은 향후 美셈코社와의 완전한 상호 기술 이전을 통해 2005년 엘리베이터 사업 부문에서 43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여 세계 TPO 5 업체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.